

도내 중·고생 통일탐구 대 토론회

오늘 도교육청서... 중학생 4팀·고등학생 10팀 등 총 14팀 참가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나의 우리'가 만드는 미래 통일 한국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도교육청 2층(고등학교)과 8층(중학교) 회의실에서 '2017 전북 학생 통일 탐구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중학생 4팀, 고등학생 10팀 등 총 14개 팀이 참가한다.

진행 방식은 각 팀에서 10분 동안 탐구결과를 발표하면 다른 참가팀에서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게 된다.

1개 발표에 대해 질의는 1분, 답변은 2분씩 최대 4개까지 질의할 수 있다.

심사단은 각 팀의 탐구력(30점), 토론력(30점), 표현력(20점), 창의력(20점)을 종합 평가해 당일 시상식을 갖는다. 중학생부는 대상·금상·은상·동상 각 1팀, 고등학생부는 대상 1팀·금상 2팀·은상 3팀·동상 4팀을 각각 선정·시상한다.

수상팀에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이날 통일탐구토론회의 참관을 희망하는 중학생 40명이 통일 염원의 마음을 담아내는 현장 소감 나눔이나 이벤트 진행을 함께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주제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해 애초 계획보다 대회 출전팀을 늘렸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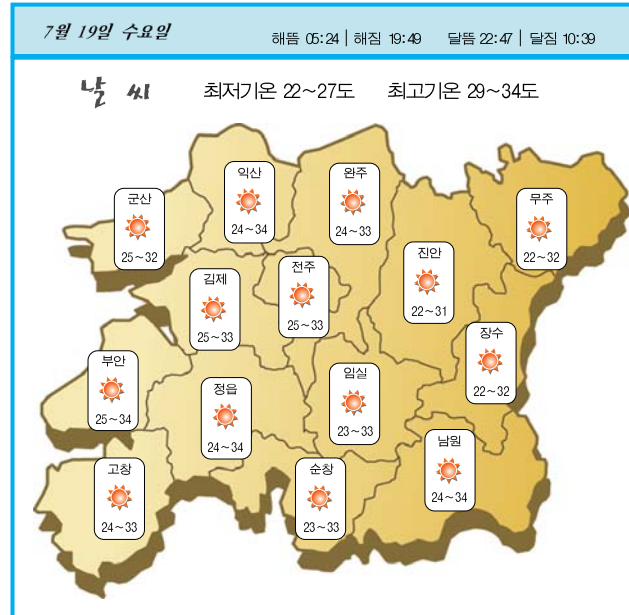
전라북도교육청은 '인문학, 일상의 행복'을 주제로 작가 6명을 초청해 토론하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도내 4개 고교 1백2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21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초청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갖는 휴먼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뤄지는 이번 아카데미에는 오창녕, 오창익 등 6명의 작가들이 초청된다.

도교육청은 작가별 참여 학생을 20명 내외로 참여하게 했으며 질문지를 준비하고 오게 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고교생·교사 초청 다채로운 대학체험 '눈길'

전공체험·학과소개 등 다양한 정보제공... 1만 여명 참가 '성황'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고교생과 교사들을 초청해 전공체험 및 학과탐방, 입학전형 설명회 등 대학체험 행사를 다채롭게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전북대는 17일부터 18일까지 고교-대학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진로선택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과(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학과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내 진수당과 뉴실크로드센터 등에서 '2017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도내·외 고교생 및 교사 등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대 전 학부(과)의 전공체험, 학과소개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롯한 입시상담, 대학교직원(교수 및 입시담당관)과의 정보교류 및 토론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자리를 선보였다.

특히 행사 첫날에는 이남호 총장이 전입입학사정관들과 함께 '1일 위촉입학사정관'으로 참여해 모험·창의인재전형 등 입학전형에 관한 상담을 비롯해 고교생들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와 기념촬영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전북대 모험생이 되는 법(대세는 모험생)이란 주제로 열린 이 총장과 고교생들이 함께 한 토크



전북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전북도내·외 고교생 및 교사 등 1만 여명이 참가 진수당과 뉴실크로드센터 등에서 '2017년 전공체험·학과탐방·입학전형설명회'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전북대 이영민 전입입학사정관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고교생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면 총장이 직접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돼 교육수요자와 대학 간의 공감·소통의 장이 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인근 전주

대, 우석대, 군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조선대 등도 고교생들의 대학체험 행사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여중문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전공체험과 학과탐방 등 대학을 체험할 수 있는 행

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한스타일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첫 삽'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인 법학전문대학원 신축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신축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스타일 캠퍼스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규모 공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법학전문대학원 신축은 그간 법학 전용 건물이 없어 여러 수업들이 분산 운영된 데 따른 불편과 법조 실무실습을 위한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그간 많은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간 다각도로 예산확보에 대해 노력을 펼쳐왔고 지난 2015년 국고로 설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통해 이번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에 건립되는 법전원은 190억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8,798㎡(본관동 8,424㎡, 한옥동 374㎡)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한옥형으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여기에는 2백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계단형 대형 강의실 중·소형 강의실, 학생 열람실, 교수연구실, 강학공간 및 휴게실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남호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축은 조만간 시작된 국제컨벤션센터와 정문 겸 콘서트홀개발사업과 함께 우리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2년 후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본관과 한옥동이 조화를 이뤄 명실상부한 법조인 양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오디세우스 수료생 해외 선진기관 견학

이공학 오디세우스 5기 수료생들이 해외 선진기관 견학에 나섰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공학 오디세우스 프로그램 5기 수료생들은 약 보름간의 일정으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우수 대학 및 연구소 견학을 위해 지난 17일 출국했다.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은 도교육청과 전북대가 협력하여 도내 이공학 영재학생을 선발, 분야별 지도교수와 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2012년 1기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5기까지 운영되었다.

이번 해외견학에 참여한 학생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우수 대학과 벤처기업, 연구소 견학,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기업이 정신을 익히고 이공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 선진기관 견학을 통해 오디세우스 수료생들이 견문을 넓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디세우스 5기 수료생들은 지난 14일 최종 결과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가졌고 오는 9월부터 오디세우스 6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정해은 기자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민,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